

제1회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 참가단

박영희(참가단장, 빗장을 여는 사람들 소속) 134-080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84-3 1층
02-685-8979
김광이(빗장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 151-060 서울시 관악구 봉천10동 1514-11
02-882-6357
김미연 (장애여성 활동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586 1/2 동방약국 2층
02-831-2196
배복주(빗장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 156-095 서울시 동작구 사당5동 244-4
02-522-3855
윤미경(빗장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 137-797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10차 아파트 316동 1101호
02-533-7448
윤석인(작은예수 수녀회 소속) 143-150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38 7/7 작은예수회
02-462-7970
이낙영(맹인여성회 소속)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48 하상복지관내 맹인여성회
02-459-2154, 02-552-9814
이은경(미 콜롬비아 주립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507W 113TH St. #22A NewYork NY 10025 USA
02-649-0152 158-071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 아파트 922동 1401호
정영란(빗장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 134-089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84-3 1층
02-469-2154
정형란(장애여성 활동가) 483-03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1동 497-1 화성1차 104호
0351-866-7270

자원활동 참가

김민지(미 콜롬비아 주립대 심리학 박사과정) 472 Winthrop St. Westbury, NY 11590 USA
김선옥(코리아 헤럴드 기자) 서울시 중구 회현동3가 1-12 코리아 헤럴드 빌딩 주간부
02-727-0446
신영순(번동 장애인작업장 코이노니아 원장) 142-062 서울시 강북구 번2동 2301번지 주공5단지 2층

박 영 희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 참가단장, 빗장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

처음 포럼 참가단이 모여 회의를 하던 날 우리는 포럼에서 각자가 느꼈던 바를 나누면서 포럼에서의 감동과 내용들을 우리 것만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말조차도 낯선 이땅의 장애여성들과 나뉘야 한다는 그리고 알려야 한다는 책임이 있음을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준비하여 인정하면서 최초로 장애여성들이 연합이 되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 우리손으로 보고대회를 열자고 결의하였습니다.

몇 차례 걸친 회의와 각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는 경험이 없기에 실수를 거듭하면서도 각자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인내심과 싸우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각자 다른 장애특성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인정해주고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땅에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더 이상은 소외되거나 자기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이 하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첫시작은 미약하지만 다음은 조금더 성숙되고 완성된 연합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웠던 시작을 해냄으로 진정 포럼이 우리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우리는 돌아와서 직접 실현시켜 봄으로써 우리 각자는 물론 장애를 가진 여성들도 시작하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여성들이 오늘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강한 욕구가 무엇인지 의식하고 그 욕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훗날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우리의 시작이 참 좋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날이 있기까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 속 (정무제2장관)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 참가단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 참가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후속으로 올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장애여성지도자 연수'와 '제1회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에 참가하신 분들이 장애여성의 제반문제를 우리사회의 각계각층에 계신 여러분들과 마음을 모아서 고민하고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장애여성들은 장애계나 여성계에서조차 소외된 채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으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 참가단을 만들어 장애여성들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애쓰시는 참가단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장애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제도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특혜가 아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의 조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장애여성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장애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강구하여야 하며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취업·고용증진을 도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장애여성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연계된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또한 장애여성 스스로 권익을 옹호하는데 적극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여성들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발전에 크고 작은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

럼 참가단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주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보고대회를 마련하느라 수고하신 참가단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 참가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큰 외침과 자긍심 그리고 열정

- 국제 장애여성 지도자 연수를 다녀와서 -

김 미 연 (장애여성 활동가)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오레건 주 유진에서는 제1회 국제 장애여성 리더십 포럼 (6월 15일- 20일, 워싱턴 디시)에 앞서 전 세계 28개국에서 지원한 35여명의 장애여성들의 지도자 자질 향상과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 장애여성 지도자 연수 (Mobility International USA 주관)"가 열렸다. 필자는 이 지도자 연수와 포럼에 미국 공보처의 장학금으로 참여했다.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확인된 장애여성의 리더십 열기에 이어

지난 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회 세계여성대회에서 확인된 장애 여성의 리더십의 열기는 그동안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다. 각국으로 돌아간 장애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베이징에서 맺어진 인연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던 중 장애여성들의 전문적인 리더십 개발과 정보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러한 열망들이 모여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오레건 유진과 워싱턴 D.C에서 각각 장애여성 지도자 연수와 제1회 국제 장애여성 리더십 포럼이 개최된 것이다.

장애여성 지도력 향상을 위한 연수

포럼에 앞서 미국 오레건 유진에서 열린 "국제 장애여성 지도자 연수"는 지난 95년에 모빌리티 인터내셔널 유에세이(Mobility International

USA; 이하 MIUSA)가 베이징에서 열린 제4회 세계여성대회에서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장애여성 리더십 개발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각국의 장애여성들의 리더십 자질 향상과 실무 능력 개발에 대한 절실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지난 96년부터 소정의 양식을 거쳐 선발된 28개국에서 온 35명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나라에서 활발히 장애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미 어떤 참가자들은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다.

적절한 지원체제와 자발적인 도움으로 극복된 다양한 언어와 장애의 장벽

연수 첫날, 우리들이 당면한 공동의 과제와 논의 주제는 완벽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만드는 일이었다. 사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성마비, 심각도가 다른 지체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40여 명의 장애여성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한 두 시간도 아닌 보름 동안에 함께 강도 높은 지도자 연수를 갖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청각장애인과 모임을 한번도 가져 보지 못한 나에게도 참가자 중 대여섯명이 청각장애여성이라는 사실이 매우 낯설었다. 게다가 영어, 불어, 서반어, 러시아어, 수화 등 다양한 언어를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도 문제였다. 그러나 커다란 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각자 자기 소개와 함께 자신의 장애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는 태국에서 온 시리니(태국 시각장애여성 클럽 창설자이며 회장)예요. 보시다시피 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점자나 녹음된 자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동할 때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누군가 저의 팔장을 끼고 함께 가면서 주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온 청각장애를 가진 유프라시아(짐바브웨 청각장애여성 모임, 청각장애여성의 날개 모임 창설자, 남아프리카 11개국 장애인연합회 지역 여성개발 위원)예요. 되도록 수화 통역자를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

으면 해요. 제게 말을 건넬 때는 저의 어깨를 툭툭 쳐서 의사를 밝히거나 얼굴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왼쪽 다리의 절단 장애를 가진 까르멘(브라질 장애인 연합의 여성개발과 재정담당 위원)입니다. 비록 양쪽 목발을 사용하고 있어 이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구지 휠체어는 아니더라도 쉴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해요."

오전 내내 우린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갔고 이전에는 미처 살피지 못했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필요를 배워갔다. 그날 이후 우리 모두는 자신보다 다른 장애여성을 먼저 배려하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자발적인 훌륭한 보조자가 되었다.

같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대해 항상 거리감을 느끼고 있던 나에게도 단순히 이 시간만으로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다른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한걸음 나아가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그리고 이 행사를 이끌었던 엠아이유에세이(MIUSA)의 직원들 모두가 수화를 하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다음 회의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이어졌다. 통역 가능한 언어는 러시아 어와 스페인 어 그리고 미국 수화 뿐이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빠른 속도의 굴곡이 심한 영어는 비영어권 국가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에는 무리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린 중요한 사인을 하나 만들었다.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지 못했다면 두 손을 아래 위로 움직여 진행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다시 한 번 말해 주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신호 체계였다. 그리고 토론 중에는 진행자가 반드시 의견을 발표한 사람의 내용을 가장 쉬운 영어로 다시 한 번 요약 반복 하자는 약속을 만들었다. 그동안에 러시아 어, 스페인 어, 수화 통역자들은 충분한 통역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통역체계를 마련한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언어와 장애 유형을 충분히 고려한 소규모의 팀을 구성했다.

참가자 중 니카라구아에서 온 레즈비아는 전신마비와 청각장애로 가장 장애가 심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수화, 구화 통역자인 마갈리와 영어와 서반어 통역자 스텔라의 적절하고 신속한 도움으로 그녀는 연수 기간 동안 무리없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세 여성이 보여주는 하모니를 통해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복잡하고 복합적인 장애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과테말라에서 온 시각장애여성 카를라와 멕시코에서 온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여성 그라실리아의 동역은 우리들에게 장애여성들간의 도움을 통해서도 서로의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서반어를 사용하였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카를라가 입모양에 주의해 통역을 해주었고 그라실리아는 장소를 이동 할 때 카를라의 안내자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이들의 협력은 장애여성들간의 필요가 서로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해결 될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었던 것은 연수를 운영하는 MIUSA 스태프들의 능숙한 수화 능력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 때문이었다.

장애인에게 열린 유진의 교통 환경

비단 의사소통 체계와 장애여성들간의 자발적인 협조만이 지도자 연수의 진행을 용이하게 한 것만은 아니었다.

유진 시의 교통환경은 대부분의 장애여성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어찌면 당연히(?) 겪었을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롭게 해 주었다.

연수 첫날 오후, 우리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유진에서의 생활을 위해 그들의 지역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 첫번째 시간은 바로 유진의 지리와 공공버스를 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유진의 공공버스 회사인 엘티디(Lane Transit District:LTD)는 모든 버스에 리프트를

장착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각 버스마다 2대의 휠체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보통때는 비장애인을 위한 좌석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다.

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 각 버스가 약 10센티쯤 바퀴의 높이가 기울어질 수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로웠다. 엘티디(LTD) 관계자는 이러한 버스를 구입하는데는 5% 정도 비용이 더 들었지만 그 비용은 장애인 승객들의 요금에 의해 충분히 충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들도 당당히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였던 것이다.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교통시설을 만드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통념이 깨질 수 있었던 기회였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미국내에서도 이러한 교통환경을 가진 곳이 흔치 않으며 뉴욕등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던 나는 적어도 유진에서 엘티디(LTD)버스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택시, 뱅, 승용차 등의 모든 교통수단에는 반드시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장착된 것들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우리 모두가 동시에 이동해야 할 때에도 신속할 수 있었다.

진지한 논의

연수 동안 우리의 주요 논의 주제들은 리더쉽, 조직개발, 기획, 장애여성 문제의 정책화, 재원 확보, 매스미디어 활용 전략, 그리고 소식지, 리플렛,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해 홍보전략, 장애여성의 건강과 성, 직업과 고용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전략 등과 같은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실질적인 내용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음 진지하게 의논하기 시작한 주제는 "장애여성의

지도력"이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나라에서 활발히 장애인 운동과 장애여성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어떤 장애여성들은 장애인 조직 내에서도 훌륭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 지도력을 바탕으로 장애여성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좋은 예가 필리핀의 장애여성 운동이었다. 필리핀에서 온 비너스 라강(지체장애)은 필리핀의 장애아동을 위한 국가 재활프로그램 담당자이면서 필리핀 장애인 연맹의 의장을 맡고 있는 원숙한 지도력과 풍부한 장애인 운동의 경험을 가진 참가자였다. "필리핀은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섬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실시되는 장애인 정책이라도 전국민에게 효과를 미치기는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래서 지난 93년부터 효율적인 장애인 운동을 위해 필리핀 전지역의 장애인 조직들이 '필리핀 장애인 연맹'을 결성하였답니다."라고 자신의 조직을 소개했다.

그녀가 요즘 구상하고 있는 계획안은 이 연맹 안에 장애여성 조직을 만드는 것.

이 조직을 통해 잠재적 지도자 자질을 가진 장애여성을 발굴하고 그들을 위한 리더쉽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이들을 각 지역의 장애인 조직에 파견하는 것이 그녀가 꿈꾸고 있는 필리핀 장애여성 운동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장애여성 운동에 대한 풀뿌리 장애여성들의 관심을 끌어내야 하는가가 그녀가 당면한 문제였다.

기존의 장애인 운동 안에서가 아니라 아예 자조적인 장애여성 조직을 만들어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장애여성 운동을 이끌고 있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우간다 장애여성 리소스 네트워크(Resource Network) 회장인 사피아 나우레(소아마비 지체장애)가 그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우리 조직은 우간다의 장애여성들에 의해 구성된 장애여성들을 위한 조직이에요. 우리는 스스로의 재원 확보 노력으로 자조적인 장애여성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에서 강력한 장애여성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피아의 우간다 장애여성들을 위한 기획서 내용은 고용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생존 자체가 큰 문제인 아프리카에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인지 그녀의 많은 관심사가 장애운동의 사업화(Business)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장애여성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애여성운동의 핵심 내용이었다.

한편 휠체어를 사용하는 하(Ha)과 판(Phan)은 베트남 장애조직 안에서 동등한 지도력을 가진 장애여성들이었다. 이들은 "베트남 장애인의 보다 나은 미래"라는 조직에 속해 있었는데 이곳에서 부회장인 하는 "우리 조직에서는 장애여성들의 의견과 제안이 장애남성들에 의해 배척되거나 등안시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장애여성의 리더십은 장애남성들과 함께 이끄는 조직 속에서 동등하게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전했다. 그리고 자신이 조직에서 동등한 지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조직이 구성된 초창기 때부터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이 동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조직은 초창기 때, 남성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조직도, 여성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조직'이라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녀의 설명은 대부분 장애여성 자조조직을 꿈꾸는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재원확보 기술

"장애여성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자연스럽게 조직 개발의 기술과 재원확보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장애여성들의 자체 조직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재원 확보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결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련된 프로그램이 재원확보를 위한 워킹숍이었다.

이 시간은 더 글로벌 펀드 포 워민(The Global Fund for Women)에서 파견된 라우리니와 월드 블라인드 유니온(World Blind Union) 초대 회장 키키 노르스트림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종 재단에 제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는 기술이었다. 라우리니는 재원을 제공하는 재단의 관계자 입장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기획안이 무엇인가를 강의했으며 키키 노르스트림은 재정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 규모의 재단들에 관한 정보를 나누어 주었다.

연수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이 프로그램은 연수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어찌면 막연하게 꿈꾸어 왔던 조직들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주었다.

다른 환경, 그러나 같은 비전

연수기간 동안 각종 주제별 워킹숍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끌어 갔다. 선진국 장애여성의 삶의 환경이 결코 아시아나 아프리카 장애여성들의 것과는 같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려는 서로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게 하였고 개개인이 처한 사회환경에 맞는 장애여성 운동의 전략을 함께 고민하게 했다.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등 비슷한 지역과 사회환경을 가진 장애여성들은 쉽게 서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공통적인 어려움을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제기된 주제와 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점을 찾아낸 경험이 있는 장애여성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성공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특히 20여 년이 넘게 겪어 온 장애운동과 여성운동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미국 장애인 운동의 핵심에서 25년 이상을 활동해 온 칼 라이트(심한 약시장애) 등과 같은 선배 장애여성과의 만남은 우리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장애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을 놓고 장애인 단

체들끼리 분열되지 않는 것이 장애인 운동의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여성 운동이 장애인운동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실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중단하지 말며 장애여성들 조직내에서 장애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각장애나 시각장애여성들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는 값진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하나되기,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가자들의 흥미를 끌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되게 한 것은 각기 다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가진 28개국의 40여 명의 장애여성들을 비록 짧은 2주 동안이지만 서로 신뢰하고 도울 수 있는 훌륭한 팀으로 엮어내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들이었다.

그 첫번째 프로그램은 유진 YMCA에서 가진 생활체육 그리고 휠체어 농구 강습이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는 어쩌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해왔던 생활체육의 즐거움을 맛보았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수지 그라임은 미국대표 장애여성 휠체어 농구선수로 88년 서울 올림픽 때 금메달을 획득한 장본인이었다. 우린 그녀를 통해 장애여성도 훌륭한 스포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팀워크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창의적이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 이 동안 우린 누구나 자발적인 리더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함께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술을 익혔다.

그런데 2주 동안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자신감과 성취감을 든든히 고취시켜 준 것은 오레건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펼쳐진 여러 가지 팀워크 개발 프로그램들이었다.

용기와 공동체 의식을 필요로 한 로프 코스, 주말을 이용해 태평양 바

다가를 거쳐 찾아간 하니맨 주립공원에서의 캠핑,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메켄지 강에서의 급류타기 등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는 항상 장애를 가진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강, 바다, 산 등 아름다운 자연을 우린 마음껏 향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으로 각자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라도 서로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도울 수 있는 좋은 추억과 훌륭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었다.

지속적인 지구적 조직망,

WILD(Women's Institute on Leadership and Disability) 구성

그러나 2주는 많은 것을 충분히 논의하기엔 우리들에겐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교류의 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우리만의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만의 조직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WILD(Women's Institute On Leadership and Disability)

우리는 연수 기간 동안 배운 조직개발 기술을 스스로를 조직하는데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 조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때 마침,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진의 변화가에 위치한 컴소오스(Comsource)에서 실시한 인테넷과 컴퓨터 테크놀로지 관련 워크숍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만들게 했다. 우선 우리는 컴퓨터 통신 환경이 제공되어 전자우편 주소를 가진 참가자, 팩스나 전화 등의 통신환경을 가진 참가자 그리고 우편으로만 연락이 가능한 참가자들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통신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지구적인 통신망과 연락망을 건설할 것인가를 깊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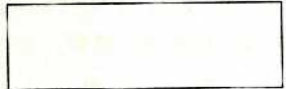
이를 위해 위민네트(Women Net)에서 파견된 여성이 바로 마우린 매슨, 그녀는 컴퓨터 통신 환경이 열악한 장애여성들이 어떻게 위민네트를

통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가와 각기 다른 통신 환경 가운데에서도 신속하게 연락체계를 형성 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강의했다. 그녀의 도움은 처음 컴퓨터 통신을 접해 본 장애여성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의 각기 다른 환경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제기된 문제는 바로 컴퓨터조차 없는 아프리카 장애 여성들의 열악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신속한 MIUSA 스탠들은 컴소오스를 통해 연수가 끝나기 전에 이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하겠다는 기부자들을 찾아냈고 이들은 컴퓨터 활용기술과 더불어 팬티엄급의 성능 좋은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WILD로 새롭게 조직된 28개국, 35명의 장애여성들은 아쉬운 2주간의 국제장애여성 리더쉽 인스티튜트를 마치고 좀 더 많은 장애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제1회 국제 장애여성 리더쉽 포럼(6월 16일- 20일)이 열리는 워싱턴 D.C로 떠났다.

전 세계에서 장애여성들이 만나 오직 장애여성들만의 주제와 경험을 함께 논의하고 교류 할 수 있었던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미국여행은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고 훌륭한 기술들을 익힌 뜻깊은 시간이었다.



Mobility International USA는 장애인들을 위한 국제교환 프로그램, 여행, 지역서비스 그리고 리더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 오리건 주 유진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이다. 1981년 이후로 전세계 40여개국 이상의 장애인 기관들과 국제교환프로그램을 실시해 온 이 기관은 국제교환프로그램과 조직개발에 대한 자문 기관으로서도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Mobility International USA : PO Box 10767, Eugene, OR 9
phone:(+1)541-343-1284 (voice/TDD) / E-mail : info@miusa.org

세계 장애여성의 현실과 희망

- 제1회 국제 장애여성 리더쉽 포럼을 다녀와서 -

박 영 희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 참가단장, 빗장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

최초로 장애를 가진 여성을 위한 '국제 장애여성 리더쉽 포럼'이 워싱턴 D.C 베데스다 하이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렸다. 한국에서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 7명과 자원활동자를 포함하여 13명이 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빗장을 여는 사람들, 맹인여성회, 작은 예수회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짧은 장애여성운동의 체험을 가지고 세계장애여성들은 과연 어떤 체험과 어떤 방법으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인권과 교육, 그리고 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커다란 포부와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표로서 참가한다라는 부담과 자긍심으로 워싱턴으로 향했다.

82개국 614명이 참가하였고 그들의 지역과 상황은 모두 달랐지만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가'하는 눈빛과 의지는 공통되었고 마주하는 얼굴에는 동지라는 공감대가 우리를 묶어 주게 하였다. 이번 포럼은 세계장애연구소(WID)가 주관하고 국제재활협회(RI), 모빌리티 인터내셔널 유에스에이(MIUSA), 세계장애인연구소(WID)가 주최조직이 되어 포럼을 이끌었다. WID, RI, MIUSA의 미국지회 실무진들은 북경여성대회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삶의 문제를 공유했던 열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지도력 훈련, 네트워킹, 실제적 정보 교환을 논의하기 위한 기획과 섭의를 하였다. 힐러리 로드램 클링턴을 명예회장하고 미국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재활서비스국의 담당 차관보인 자체장애인 주디스 휴먼과 미국 사회보장국 장애인 위원회 의장인 수잔 다니엘이 포럼의 공동의장이었으며 총관리자는 WID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장애여성 캐시 마티네즈였다.

또한 공동지원금은 2000프로젝트와 관련된 단체들과 국제조직으로

U.N.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재활협회 외에도 많은 민간단체가 후원하였다.

포럼의 내용과 형식의 주안점은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인권과 권익을 위해 활동한 체험과 운동방법을 나누고 각지역과 가정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두고 매일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날은 '리더십 양상들'에 관하여 둘째날은 '교육과 장애여성 개발원조', 셋째날은 '건강과 가족', 넷째날은 '고용' 다섯째날은 "정보통신과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오전은 주로 주제에 따른 기조연설과 발제가 오후에는 주제를 세분화시켜 여섯 개의 워킹숍이 열리고 저녁에는 특별관심분야, 지역별 회의, 비디오 상영, 의사와의 대화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첫날 '리더십 양상들'에서는 미국 최초의 여성국무장관인 메들린 올브라이트의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장애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모든 여성은 지구상의 어떤 사회에서든지 완전한 참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장애여성도 완전한 참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런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장애여성 운동의 최종목표라는 인식이 들었다.

다나 살랄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유엔 헌장과 같은 행동의 주안점을 설명했다. 모든 장애여성이 좋은 교육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여러 면에서 작은 변화들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그것은 제도 정책에 기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고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마리아 렌트 남아공화국 국회의원은 장애인 권리찾기 운동이 인종분리정책과 어떻게 연대해서 이루어졌으며 아프리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연설하여 많은 지지를 받았다. 1976년 소웨토 항쟁에서 경찰로부터 저격받아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발생했고 그들의 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서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1984년 4월에 남아공 최초의 민주적 선거에서 폭탄과 테러 위협에도 첫투표권을 행사하려 온 장애인들의 긴 행렬은 사흘 동안 TV화면을 채웠

고 전국을 놀라게 하였다고 전했다.

둘째날은 '교육과 장애여성개발 원조'에 대해 진행되었다. 주디스 휴먼은 장애여성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면서 교육의 기회의 차별철폐와 장애소녀들을 위한 교육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기본적인 의무교육보다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여성의 역할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권은 여성의 권리이며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일본의 나가사키 유키코는 장애여성을 대하는 아시아인들의 태도에 대해 보고했다. 그녀는 늘 어머니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책임 때문에 어머니와 장애아 사이에는 강한 유대가 생기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와 장애아의 동반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아시아에서 장애아가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어머니의 몫이지 아버지 것은 결코 아니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셋째날은 '건강과 가족'에 대한 주제였고 니카라과의 레즈비아 솔라르자노 박사는 니카라과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부재로 인해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해 장애여성들이 수명대로 살지 못한다고 전했다.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인 관심사로써 참여했던 이날 오후의 워킹숍은 특히, 장애여성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이 자리에서 장애여성들이 자기 몸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가 나왔다. 장애가 있는 자신의 몸이 아름답다라는 등 생각의 변화를 많이 얘기했다.

넷째날은 '고용'에 대한 토론을 했다. 공동 의장 수잔 다니엘은 교육은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전문적인 직업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배워 특별한 장소에 취업하게 함으로써 낮은 기대수치를 갖게 하고 정상적인 일상 시설 설치에는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면서 한사람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는 재빠르게 비용을 강조한다는 연설은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였다.

국제노동기구의 에비 메셜은 고용을 위해 장애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

대해야 하고 능력있는 개인이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은 미국 국립장애연구소에서 나온 캐서린 셸먼이 과학기술과 장애인은 왜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방글라데시의 유니세프 교육부서에서 대중매체 작업을 담당하는 리나 길은 대중매체에 비추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장면은 특별한 사람만의 일인 양 생각하는 태도였지만 긍정적 장면은 상황에 대한 책임감과 노력을 불러 일으켜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장애인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사회의 문화와 별개가 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각 나라의 장기자랑 시간에 우리는 한복을 입고 출연하여 '함께가자 우리 이길'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부채춤을 추어서 박수 갈채를 받았다.

특히 브라질팀의 현대무용은 참가자 전원 놀라움과 부러움의 박수와 환호를 받을 만큼 아름다웠다. 장애여성의 휠체어에서의 유연한 몸짓과 섬세하고 가늘게 휘어진 손끝의 부드러움과 비장애인 두명과 어우러지는 조화에 절로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장애인의 절제된 행동과 감정의 신비로운 표현은 장애인이 예술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런 모습은 장애여성의 몸이 아름답다는 천마디 말 보다 더 설득력 있게 메세지였다.

우리 참가단은 이번 포럼에 참여하면서 각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이 포럼이 전하는 중요성은 장애여성이 사회와 지역에서 한 일원으로서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이며, 자기의 권익을 주장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우리 참가단원은 포럼에서 각자의 가슴에 담아 온 것을 자기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다른 장애여성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이 문제 해결에 능동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여성운동이 우리 몇 명이 하는 것으로 다소 외로웠던 것이 포럼에 참여하면서 우선은 나만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특별

한 욕구가 아닌 정말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모두 지역도 상황도 조건도 다르지만 지향하는 것 하나는 이 사회에서 한 인격체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감있게 살고자 하는 것이다.

내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선택할 삶을 사는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에의 소망은 우리나라 장애여성들만이 갖는 것은 아니었다.

나의 욕구와 바램들이 많은 장애여성들의 희망과 보편적 일치를 위하여 포럼에서 느꼈던 열정은 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더욱 깨어 있게 할 것이다.

포럼에 참여하였던 세계 장애여성들의 강렬하던 눈빛이 지금도 내 가슴에는 각인되어 있다. 

국제 장애여성 리더십 포럼의 주요이슈 분석

이 은 경

(미 콜롬비아대학 사회사업대학원 박사과정)

들어가기

각기 다른 장애유형, 성장배경, 언어, 사회적 여건, 문화환경을 가진 세계의 장애여성이 비로소 한자리에 모였다. 본 대회의 의의는 이처럼 서로 다른 우리 장애여성이 자신이 장애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살며 겪어 온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성 속의 일체성(unit in diversity)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 여성의 문제가 나만의 혹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모든 장애여성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다.

본고는 국제 장애여성 리더십 포럼에서 쟁점화된 다섯가지 주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문제와 향후 전망을 간략히 논해 보고자 한다.

(1) 교육

첫째 본 대회를 통해 가장 중시된 이슈는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이 다. 교육부 차관보이자 미국 장애여성의 대모로 추앙받고 있는 주디스 휴만은 아직도 세계 장애여성의 75%가 문맹인임을 지적하며 장애여성에게 평등한 교육기회와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휴만은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일반학생들로부터 분리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라고 보며 장애 소녀에게 역할 모델(role model)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동의장인 수잔 다니엘은 교육은 장애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직업

기회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강조했다. 다니엘은 종래의 장애여성에 대한 '낮은 기대감'에 도전장을 던졌다. 장애인이 하는 일상활동을 '특수'하게 보는 시각을 수정하고 사회통합을 저지하는 악순환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특수하게 제조된 버스가 장애인을 싣고 특수훈련원에 가서 특수교사에게 훈련을 받고 다시 특수버스를 타고 특수 가정으로 돌아와 특수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왜 비장애인이 하면 '수영'이라고 하는 것을 장애인이 하면 '수치료'라고 부르는가? 왜 비장애인의 '식물가꾸기'를 장애인이 하면 '원예프로그램'이 되는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한국사회의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굴레로 인해 교육, 취업, 결혼 등의 전반적인 사회활동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여성은 장애로 인해 교육기회의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사회적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진 응답자는 20% 이하였으며 대부분 생산직에다 열악한 노동 환경,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어국인 우리 나라 참가단은 포럼 참가자들은 정규 교육의 부재 또는 부족으로 인한 언어장벽을 뼈저리게 느꼈다. 앞으로 이미 학령기를 넘긴 장애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2) 가족 및 건강

두번째 이슈는 장애여성의 건강, 성, 그리고 가정 문제이다. 먼저 모든 여성은 장애의 유무를 막론하고 여성으로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인 연애, 결혼, 임신, 출산, 모성과 자녀양육의 기쁨을 누려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2백 명의 미국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버클리 연구팀에서 실시한 한 욕구 조사에 따르면 가정 폭력이 장애여성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연구 과제

로 나타났고 또한 장애소녀와 여성이 비장애여성에 비해 보다 빈번이 성폭력의 희생양이 됨을 시사한다. (Feuerstein, 1997).

'96 한국여성장애인대회에서 빗장을 여는 사람들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여성이 가정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모, 형제, 배우자들에 의한 폭력은 언어폭력, 구타, 강금, 무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성교육의 부족은 뜻하지 않은 임신과 성학대를 초래하기도 한다. 나아가 모자보건 차원에서 어머니가 된 장애여성이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제의 확대 실시가 요망된다.

(3) 직업훈련과 고용

세번째 쟁점은 고용 기회의 확대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 제작한 지침서인 '장애인의 기회 평등을 위한 다각적 협력방안'은 직업훈련과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Joint ILO/UNESCO/WHO, 1996).

위 보고서는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통합교육인 바, 각 국공립 직업훈련 학교의 교사는 장애를 가진 훈련생의 특별한 욕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학시험 제도도 시각, 청각 장애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수정돼야 한다고 제시한다.

'장애인이 고용과 훈련에 있어서 젠더(gender)의 문제'란 보고서(ILO, 1995)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여성의 참여를 권장하고, 특히 자영업 분야에서 여성근로자를 위한 기술훈련을 활성화하며, 자영업 경영에 따른 대출지원을 용이하게 제도화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여성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장애여성 근로자 성공사례를 수집, 홍보하고 정부내에 장애여성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장애단체내에 여성분과를 확립하고, 비정부 단체(NGO)활동에 장애여성문제를 이슈화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ILO의 발제자 아이비 마셜은 개방 고용 기회 실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그렇듯이 장애여성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의 압력

에 의해 교육의 기회를 잃고 있다. 대체로 장애인의 고용기회는 본인의 기술과 그 기술이 노동시장의 요구와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달려있는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실직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장애여성의 고용문제가 더욱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남성은 30%, 장애인 남성은 15%, 비장애 여성은 11%, 장애여성은 8%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여성이 직업을 갖기란 비장애 남성에 비해 약 네 배의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기회의 개선이다. 또한 현 남녀고용평등법에 장애여성의 차별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조항을 명기하여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환경과 정보통신

네번째 이슈는 장애여성을 위한 주거 및 생활 환경의 개선이다. 이동과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서 제약을 느끼는 장애인들에게 환경과 정보통신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과

미국 보건-대인 서비스부의 장관인 다나 살라라는 최근 진홍빛 휠체어를 타고 선을 보여 화제를 일으킨 발비 인형 베키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아이러니를 설명했다. 문제는 휠체어를 탄 베키가 발비인형의 집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책, 그리고 정책 결정가들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다.

우리는 불이 나가면 으레히 새로 전구를 갈아끼우고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조치를 취할 때는 그에 따른 비용을 환산하는 데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명약관화한 것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 편의 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즉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과 모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한 보편적인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접근권이 보장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하철 역구내 엘리베이터,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넓은 개찰구, 큼직한 방향 표지판 등 특히 미국의 모든 화장실은 반드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 되었는데, 이는 만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5) 지도력


마지막으로 장애여성 문제의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장애여성 자신인 바, 본 포럼의 주제는 장애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당당히 살아가기 위한 힘의 부여(empowerment)와 지도력(leadership)이었다. 이를 위해 장애 여성 스스로의 주도적인 노력과 장애단체 그리고 여성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그리고 국제적인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문제의 해결점과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는 것이 이 포럼의 결론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참가단이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자립적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외국 장애여성의 모습이었다. 보조인을 동반하지 않고 어디든 혼자 다니는 맹인여성, 전동 휠체어를 날렵히 운전하는 지체장애 여성, 늘상 활기찬 아프리카 장애여성 등등...

나오며

“남자를 지원하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여성을 돕는 것은 가족전체를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스웨덴국제장애인원조기구(SHIA)의 한 대변자는 말한다. 장애 여성이 당면한 이슈는 단순히 장애인의 이슈 혹은 여성의 이슈가 아니다. 그것은 이 세계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차별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이중적인 차별구조에 묶인 장애 여성이 바로 서고 자기 목소리를 낼 때라야 다른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된다고 본다.

따라서 장애여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욕구조사를 바탕으로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향후 장애여성을 위한 사회정책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Community Base - Rehabilitation; CBR)를 지향해야 한다. 장애인 재활, 기회평등, 사회통합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CBR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장애청소년의 교육훈련, 그리고 고용기회의 확대를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자신, 가족, 지역사회의 협력과 적절한 의료, 교육, 사회재활서비스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참고 문헌

Disability Awareness in Action. (1997). Disabled women. London: Disability Awareness in Action

Furerstein, P. (1997). Domestic violence and wom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y. New York: Milbank Memorial Fund.

ILO.(1997). Gender Issues in training and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y. Geneva: ILO.

Joint ILO/UNESCO/WHO. (1996). Maltisectoral collaboration for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한국맹인여성회의 역사와 활동내역

이 낙 영 (한국맹인여성회 회장)

한국맹인여성회는 1976년 1월 12일 맹인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12명의 여성들에 의해 발족되어 지금은 한국의 맹인여성들을 대표하는 명실공히 한 단체로 성장해 왔다.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회원들 자체의 힘으로 개최한 음악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저·저소득층 맹인자녀 다수에게 학자금을 지급했고, 쏟아져 나오는 날마다의 새로운 서적을 점역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노력, 학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화에 뒤떨어 질 수밖에 없는 억울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음도서를 제작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녹음도서관을 최초로 운영하였으며 매년 바자회를 열어 보다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정성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밖에 영어회화강좌, 요리강습, 꽃꽂이 강습, 코디 강습, 예절교실 등을 통해 맹인여성들의 교양함양에 꾸준히 힘써왔다.

우리가 국제 장애여성 리더쉽 포럼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다른나라의 장애여성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에 고민은 무엇이며 정부는 또 그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였다.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무엇보다 기뻐던 것은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아픔이 다르다는 이유로 멀게만 느껴졌던 이들과의 애정 깊은 교류였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장애여성들에 고민도 나라에 관계없이 모두 공통적이라는 점에 놀랐다. 그들도 자신들에 쉽지 못한 결혼문제나 제한된 직업기회 문제로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각국이 다양한 장애여성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도 예외없이 시각장애여성들은 비언어적 의사 소통이 토료음으로 많은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

낄 수 밖에 없었다. 새로운 물리적인 환경을 손과 흰지팡이로 익혀서 더듬어 다니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한편 한가지 부러웠던 것은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장애여성들과 달리 외국의 시각장애여성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훨씬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몇몇 후진국을 빼면 외국 정부에서도 그러한 그들을 돕기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직도 장애인을 색다른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확실한 복지제도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미흡한 우리 정부를 생각할 때 몹시 마음이 아팠다. 이러한 사회와 정부가 보다 바람직하게 변화할 수 있기 하기 위해서는 훨씬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자긍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맹인여성회가 '담당해야 할 몫은 참으로 중차대하다고 본다.

첫째는 직업을 가진 시각장애 주부들이 부담없이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를 맡아주는 일이다.

둘째는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로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는 가정상담 및 자녀 교육 상담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넷째는 중도실명여성들을 위한 재활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직업의 개발 및 지도가 요망된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시각장애 여성들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미약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모든 여성들이 한 자매와 같이 힘을 모은다면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맹인여성회는 내년에 서울에서 열릴 WBU 동·태평양 지역 여성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되지 않는 밝고 따뜻한 우리사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참관기1

윤 석 인 (작은예수 수녀회 부원장)

나는 처음 “제1회 국제장애여성리더쉽 포럼”이라는 대회명을 듣는 순간, 뭔가 태동하는 변화의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작은 예수회에 10여년을 몸담고 장애인복지 운동을 해오고 있는 중증 1급 지체장애인 나는 가톨릭 2백년 역사에서 최초의 장애수녀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작은 예수회”라는 결실의 꽃망울을 터트리기까지 기적 같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살아온 내게 이번 대회가 준 긍정적인 자극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이 포럼은 비록 다른 장애, 다른 피부, 다른 언어 그리고 다른 습관을 가진 장애여성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자기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오기 위해 싸워왔을 내적, 외적 시간들의 무게들을 포럼의 다양한 주제의 워킹샷과 만남을 통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포럼을 통해 내가 얻은 첫번째의 결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애여성으로서 나만큼 심한 장애여성은 매우 드물다는 개인적인 견해가 깨진 것이었다. 그러한 생각은 지엽적인 좁은 안목에 얽매인 시각이었던 것이다. 나는 목조차 움직이지 못하고, 전동휠체어에 호스를 연결해서 입에 물고 호흡으로 이동하는 많은 장애여성들을 이 포럼 기간 동안 자주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이 쓴 시를 모은 시집을 포럼 기간 내내 판매하기도 했다.

그리고 두번째로 결실은 포럼 기간 동안 자신의 나라에서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장애여성들을 만난 것이었다. 그녀들은 자신의 장애상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 좌절의 상황을 딛고 서서 자기만의 세계를

개척해 낸 여성들이었다. 그녀들의 당당한 모습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어깨에서부터 두팔이 없어 두 발로 모든 일상을 처리하는 한 장애여성은 자신의 몸을 미로의 비너스처럼 객관화하여 아름다운 시와 비디오로 형상화된 자신을 표현해냈다. 그리고 브라질과 미국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여성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섞어내는 아름다운 현대 라틴 무용은 참가자들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또한 유엔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필리핀 장애여성과 바티칸 교황청에서 일하는 일본장애여성과의 만남은 장애여성들도 고등교육을 인정받는 전문인이 될 수 있다면 넉넉히 국제기구나 자국의 고위직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럼의 주제 중에서 내게 놀라움을 준 것은 장애여성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문제에 대한 구체적 접근과 연구결과들이었다. 특히 수녀라는 나의 개인적인 신분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지도 모른다. 동양인인 우리가 장애여성의 결혼에 대해서 모든 여성들이 하느님께 부여받은 선물인 가족간의 사랑의 기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출산과 육아면에 치중하여 접근하는 반면 서구에서는 역시 부부 당사자의 애정관계를 우선시하여 심리적 영역 뿐만 아니라 성관계까지 세심히 조인하는 정보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포럼이 처음으로 82개국에서 614명의 장애여성들의 모여 서로의 체험과 좌절 그리고 성취들을 나누는 역사적인 자리여서인지 이 포럼의 기록영화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있었다. 제작팀은 약 30여 명의 대표적인 장애여성들을 인터뷰하였는데 그 제작팀이 장애수녀인 내가 눈에 띄어 단독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나는 나의 한 생애를 봉헌하는 기도로 살고 싶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소망하는 수녀로서 살고 싶다.

하느님이 내게 주신 이러한 소명의식은 13시간이나 되는 긴 귀국길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실, 솔직히 심정으로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면 '천주교 수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봉사와 헌신'의 고정관념과 어찌면, 거리가 먼 장애수녀로 존재하는 나의 삶을 스스로 감당하기 감당하기 힘들어 도망치고 싶어 하는 시간들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천주교 수도회 담당 주교님과 작은 예수 수녀회 수녀회 원장 신부님이신 박성구 요셉 신부님과 나의 수련문제로 면담할 때, 나는 내가 수녀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막상 수녀회 입회가 허락되었을 때 내 자신조차 너무나 놀라 믿어지지 않았다. 분명히 그것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기적이었다.

이후 나는 3명의 비장애인 수녀들과 같이 교회법이 규정한 1년간의 봉쇄 수련기를 보내는 동안 장애인으로 처음 수녀가 된 내가 실패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수녀회의 탄생이 실패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러한 수녀회를 반드시 탄생시켜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모범적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확실히 수녀로 인정받기 위해 나만의 고독한 수련의 시간들을 하느님 앞에 전 생명을 걸고 축복을 받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 보고대회에서 나는 동료 한국장애여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말은 기록 영화 제작팀이 장애여성 문제 해결 방안을 물었을 때 대답한 것과 같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비장애인들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여성들 스스로가 서로 연합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갑시다.” 

참관기2

김 선 옥 (코리아 헤럴드 기자, 통역자원활동 참가자)

6월12일 아침 7시 40분 자원봉사자 두 명을 포함한 우리 일행 9명은 김포공항 제1청사에 모였다. 잠을 설치고 나온 모습들이 역력했지만 모두 조금씩은 들떠있는 듯했다. 짐을 부치고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출국수속대로 모였다. 장애인들인 우리에게 대한 배려로 출국 수속도 총무를 맡은 배복주 씨만 제외하고는 간단히 끝났다. 배복주 씨에게 금속탐지기를 몸에 대는 순간 뼈.. 뼈... 뼈... 너무 요란스레 울리는 바람에 특별검사를 받아야 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복주의 이런 수난은 어떤 일인지 계속 되었다.

우리는 비행사측의 배려로 제일먼저 탑승했다. 휠체어를 탄 박영희 단장과 정영란 씨는 비행기 입구에서 특수 운반 장치에 실려져 비행기안으로 옮겨지고 휠체어는 기내 화물칸에 실렸다. 박영희 씨와 정영란 씨는 비행기 좌석에 안전벨트로 온몸을 고정시켜야 했다. 달리 방법이 없기에. 박영희씨는 이것을 '포박'이라고 불렀다.

13시간의 비행기 여행은 우리를 충분히 지치게 할 만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미국에서의 계획을 정리하기에는 무척 좋은 시간이기도 했다. 처음 해보는 장거리 여행으로 몸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우리는 씩씩하게 미국에서의 첫 기착지인 디트로이트에 도착했다. 디트로이트에서 입국 수속을 받고 워싱턴 행 국내선으로 갈아타기까지 약 2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노스웨스트 항공사 측에서 장애인이 낀 우리 일행의 편의를 위해 한명의 안내원을 보내 주었다. 그는 우리가 국내선 게이트로 이동을 하기 위해 셔틀 버스를 타기까지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 우리를 조금은 감동시키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그가 워싱턴행 국내선 게

이트를 잘못 아는 바람에 우리는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헤어졌다.

디트로이트에서 워싱턴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반 정도 걸렸다. 이착륙할 때 귀가 너무 아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고 워싱턴 남쪽에 위치한 워싱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도 항공사 측의 배려로 안내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공항에는 워싱턴 밀알선교회의 목사가 우리를 마중나와 있었다. 선교회의 장애인용 차로 우리는 워싱턴 북쪽에 위치한 메릴랜드 대학 근처의 우리의 정해진 숙소로 이동했다.

차창너머로 바라본 워싱턴은 정원도시 같았다. 워싱턴을 남북으로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포토맥 강 너머로 워싱턴 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세계 장애여성 지도자 포럼이 열리는 대회 장소인 베데스다의 하이아트 리젠시로 이동하기까지 이를 동안 묵을 숙소는 한국 교포가 운영하는 '데이즈 인'이라는 모텔이었다. 무엇보다도 한국 음식을 거의 24시간 먹지 못한 우리에게는 모텔에 '이조'라는 제법 큰 한국 식당이 있는 것이 반가웠다.

짐을 풀자마자 시차 때문인지 몰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해 대부분이 그대로 쓰러져 잠을 잤다. 저녁 느지막히 한국 식당에서 김치찌개 등으로 식사를 했다. 역시 '우리것이 최고여'하는 소리들을 해가며 오랫동안(?) 한국 음식을 먹은 것이다.

다음날 우리는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에 있는 북부버지니아 훈련센터(Northern Virginal Traning Cetner)를 방문했다. 1927년에 설립된 재활센터는 신체 및 정신지체 장애인 모두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이곳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한국 교포 데이빗 리 박사가 우리를 안내했다. 전체 면적이 270 에이커로 너무 넓어서 우리는 차를 타고 둘러보았다. 푸른 나무들이 우거지고 아스팔트 보다 잔디가 훨씬 더 많은 이곳은 한국의 웬만한 휴양지 보다 더 아름다웠다. 생활시설, 작업실, 물리치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내한 리 박사의 설명이었다. 한 때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생활했지만 지금은 4-5명씩 팀을 이뤄 독립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도가 심한 장애자들 2백 명 정도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를 태운 차량은 빌딩 6이라는 곳을 지났다. 그곳은 중증의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리박사는 간질환을 가진 이들이 전체의 50%, 신경계통 장애인들이 35%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한 방에는 4명의 장애인들이 간호원, 간호보조사 그리고 전문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빌딩6 옆에는 빌딩7이 있었다. 이곳에는 중증이지만 어느정도 혼자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빌딩이라고는 하지만 푸른 나무에 둘러싸인 집들이 아름다운 일반 주택을 연상시키고 있었다. 집앞 포치에는 몇명의 장애인들이 나와 앉아 있었다. 빌딩8에는 재활직업훈련을 시키는 시설이(vocational center)들어있었다. 역시 이쁜 건물에 자리잡고 있었고 안에는 그들이 클라이언트(고객)라고 부르는 장애인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전자 오락기까지 설치 되어 있는 휴식공간이 인상적이었다. 재활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외부의 계약자와 계약을 맺고 일을 맡아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종이 리사이클과 사용후 음료수 캔을 재생 처리하기 편하도록 압축시키는 작업을 맡아하고 있다. 음료수 캔 압축은 기계로 하는 방식과 수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재미 있었다. 기계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란다. 그러한 배려를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 해야할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감동했다.

이 재활센터에서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이것 뿐이 아니다. 장애인들을 위하여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된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은 웬만한 학교 체육관만큼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 또 전체 수용인원은 2백명 인데 그들을 돕는 직원은 4백 명이라는 사실도 부럽기 그지없는 이야기였다.

재정은 정부보조, 의료보험 그리고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 메디케이드(MediCaid) 그리고 기금모금으로 해결이 된다고 했다. 리 박사는 재정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정부에 충분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심의 때가 되면 미국장애인들은 국회로 가서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북부버지니아훈련센터(Northern Virginia Training Center)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워싱턴 구경을 하기로 했다. 이날 차량 지원봉사를 해준 장로의 안내로 워싱턴의 Pentagon City역 근처에 있는 최신의 쇼핑몰 관광을 했다. 메이시, 노드스트롬 등 백화점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우리는 주차할 수 있는 쇼핑몰을 왔다 돌아보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만원이어서 다른 차들은 주차장을 몇번씩 돌아야 했지만 바로 쇼핑몰 입구에 있는 장애인용 주차장은 텅비어 있었다. 쇼핑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미국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마음 씀씀이를 알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이 문앞에 나타나자 한 미국인이 문을 손으로 고정시킨 채 우리 일행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미국여행 기간 여러번 경험한 일이기도 했다. 그들의 그런 태도가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몸에 배서 그런 것일까? 별로 시간이 없어서 대충 쇼핑몰을 둘러보고 다시 메릴랜드 주에 있는 우리의 숙소로 출발했다. 워싱턴 시는 메릴랜드 주와 버지니아 주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는 특수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번씩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왔다갔다 하는 특이한 경험을 하곤 했다. 워싱턴 시의 북쪽에 위치한 메릴랜드로 올라가는 도중에 미국 국방성인 펜타곤을 보았다. 그 특이한 모양도 모양이지만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엄청난 규모였다. 건물 끝에서 끝으로 가려면 걸어서는 시간이 너무 걸릴 정도로 건물의 규모는 컸다. 세계의 경찰 국가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생각해 보게 하는 순간이었다. 또하나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워싱턴 시 거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는 흑인들의 거리였다. 지금까지 보아온 아름다운 워싱턴 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거의 황폐했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 거리의 모습은 우리를 당황스럽게까지 했다.

다음날 우리는 정식으로 워싱턴 관광길에 나섰다. 토요일이었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지만 어제 하루 늦게 도착한 수녀님들이 가세해 모두 10명으로 늘어난 우리 일행은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등이 있는 워싱턴 시내로 들어갔다.

워싱턴은 여전히 한가한 모습이었지만 백악관이 가까와지자 많은 관광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우리를 안내할 장로님 말에 의하면 평생에 한번 백악관을 구경할 수 있는 미국인들도 드물다고 했다. 그러나 워싱턴 시에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백악관이 아니었다.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에 우리는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인도 한쪽 부분에는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턱이 없는 것은 물론이었고 모든 건물의 입구에도 턱은 보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큰 공공 건물에는 장애인용 입구가 따로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시판이 어김없이 붙어있었다. 미국 장애인법에 의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감탄사는 끊이지 않았다. 백악관, 워싱턴 기념탑, 국회의사당, 제퍼슨 기념관, 조지 워싱턴 대학 등을 차로 둘러보고 사진도 부지런히 찍었다.

일요일 오전 우리는 베데스다로 이동했다. 차로 약 한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다. 가는 도중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한인교회예배에 참석하고 인사를 했다. 처음 들어가보는 미국 고등학교는 깨끗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램프 시설 등이 너무 잘되어 있었다. 물론 화장실에도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한국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30분 가량 차로 달려 베데스다 하이얏트 호텔에 도착했다.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푸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호텔 로비에는 온통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을 한꺼번에 본 것도 처음 인 듯했다. 모두다 조금씩은 들떠 있는 모습들이다. 우리는 방 배정이 끝난뒤에 모두 모여 포럼에 대한 첫 회의를 가졌다. 우리 일행은 두 명이 더 늘었다.

콜럼비아 대학에서 사회사업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은경 씨와 자원 봉사자로 이은경 씨와 함께온 심리학 박사과정에 있는 김민지 씨가 베데스다에서 가세한 것이다.

포럼은 아침 9시에 시작됐다. 첫날 개막식에는 올 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등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매일 주제를 정해 오전의 기조 연설과 발제

로 이어 오후에는 그 주제를 세분화 시켜 6개의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저녁에는 특별세션이 있었다. 닷새간의 주제는 지도력, 교육, 건강과 가정문제, 고용, 통신과 기술 등으로 짜여져 있었다.

장애여성들에게 모두 필요한 주제들이었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싶었지만 언어장벽이라는 벽이 만만치 않았다. 공식 동시통역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3개국 뿐이었기에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참가자들은 애를 먹어야 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장애장애들의 권익확대를 위해 여러 성공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의 체험과 그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운동의 방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기에 가능한한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들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수확은 무엇보다도 세계 곳곳에서 온 장애여성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를 놀라게 한것은 비교적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아시아권 장애여성들에 비해 아프리카나 유럽 등에서 온 여성들은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보다 언어적 어려움이 덜한 까닭일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들의 삶도 우리 만큼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나누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포럼에서 가장 인기있었던 행사는 각 나라의 장기자랑 프로그램이었다. 우리는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불렀다.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간단한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리는 안다. 그것이 우리의 공연에 대한 환호일 뿐 아니라 나아가 장애여성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지닌 박수라는 것을. 장기 자랑 최고의 인기는 브라질에게 돌아갔다. 휠체어를 탄 장애여성인 남성과 사랑을 주제로 무언극을 공연했다. 그 공연은 한마디로 아름다웠다. 어쩌면 장애인 스스로 우리들의 휠체어를 탄 모습이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공연은 우리 모습에 대한 우리자

신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말았다. 브라질 팀의 공연은 폐막식 때까지 모든 이들의 화제가 되었다.

또 저녁의 스페셜 세션시간에는 각 지역의 모임이 날마다 있었다. 목요일(19일)은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가 열리는 날이다. 박영희 대표가 빗장의 활동과 한국에서의 장애여성들 활동에 관해 발표를 했다. 또한 아시아 여러나라에서온 장애여성들을 만나 앞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활동의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

대회 폐막 전날은 댄스파티가 있었다. 모두 신나게 춤을 추었다. 휠체어를 탔든 안탔든. 너무 빙글빙글 돌아 어지러울 정도였다. 사실 우리에게 즐기는 문화가 어색하기만 했는데 우리도 어느 틈에 분위기에 섞여 모두 들뜬 기분으로 흔들려 댄 것이었다.

대회 마지막날 폐막식이 있었고 아쉬운 작별의 시간만 남았다.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서로 알기에 작별은 더욱 아쉬웠다. 이번 포럼에서 든든한 동지들을 참 많이도 얻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닷새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이은경 씨와 김민지 씨와도 헤어져야 했다. 그리고 우리도 서울로 돌아가기 위한 짐을 쌌다. 포럼에서 모은 장애여성들에 대한 자료만도 두 상자는 되었다. 닷새동안 얻은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워싱턴 국제 공항으로 향했다. 아쉬움은 여전하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과 동지들의 곁으로 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도 만만치 않았다. 디트로이트 공항 까지의 비행은 별 문제가 없었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들떠가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드디어 생겼다.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해 서울행 비행기 탑승 출구에 도착해 보니 비행기 출발이 연기 된다고 공고되어 있었다. 암스테르담에서 오는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비행기 정비 문제까지 겹쳐 출발은 6시간 가량 지연되었다. 겨우 비행기에 타서 안도의 숨을 돌리려는 순간 때아닌 태풍이 몰아쳤다. 활주로에서 맞는 태풍은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태풍이 멎는 순간

이제는 뜨는가 했더니 기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그때 출발하면 김포공항 도착 시각이 비행금지 시각인 11시를 넘기기 때문에 출발이 하루 연기된다는 것이었다.

항공사에서 마련해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오전 드디어 비행기가 떴다. 잠이 몰려왔고 식사가 제공되는 시간을 떠를 제외하고는 거의 눈을 뜨지 못한 채 김포공항까지 왔다.

집으로 돌아온 안도감, 그러나 김포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다시 부닥쳐야만 하는 현실 등이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지난 닷새간의 세계 장애여성 지도자 포럼의 흥분을 이제 가라앉히고 힘들지만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우리의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순간이었다. 

참관기3

윤 미 경 (빛장을 여는 사람들)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INTERNATIONAL LEADERSHIP FORUM FOR WOMEN WITH DISABILITIES)을 다녀와서.....

처음 미국이란 나라에 간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느꼈는데 막상 다녀와 보니 허무함에 묻히는 그런 기분이다.

'빛장을 여는 사람들'의 일원으로 두 달 전 이 포럼에 참가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영어공부를 나름대로 했고 건강관리 또한 열심히 준비했다. 그리고 비용 또한 열심히 부모님을 졸랐다.

이 과정에서 난 어떤 슬픔을 느껴야 했다. 나이 30이 넘은 내가 나의 일로 부모님께 돈 내놓으라고 조르는 나의 모습이 철없어 보여서 슬펐고, 또 그런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슬펐다. 이럴 때 나는 나의 장애가 원망스럽다.

드디어 6월 12일 오전 10시 비행기에 오른 우리는 13시간 동안을 비행기에 갇혀 있어야 했다. 디트로이트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려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한시간이 지나 워싱턴에 도착했다. 그건 고통이었다. 몸이 불편한 우리에게 더욱 그랬다. 나는 장시간 앉아 있었더니 원래 부실한 무릎이 무척 아파서 도착시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런 고통을 겪으며 도착하여서인지 우리를 마중 나온 미주 밀알 선교회의 목사님을 뵈니 반가웠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건 시간이 12일 낮 3시가 넘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13일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인데..... 워싱턴 국제 공항을 빠져 나오며 눈에 띈 것은 온 세상이 온통 녹색이며 공기가 너무 맑고 깨끗하고 정말 넓다는 것이었다. 나무가 많은 나라였다.

우리가 묵게 된 곳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국식당이 딸린 모텔이었다. 떠나기 전날 밤 11시가 넘어 밥을 먹으며 아마 돌아올 때까지 입에 맞는 마지막 식사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를 그렇지만 한국식사를 하였다.

분명 그곳은 저녁이었는데, 내 몸은 아침이었다. 그렇게 첫날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식당에 가 미국식 식사와 첫대면을 했는데, 햄, 치즈 오믈렛과 우유를 먹었다. 양이 엄청 많아 미국인들이 왜 키가 크고 뚱뚱한지를 알 것 같았다.

오후에는 장애인 시설을 탐방했다. 그곳은 '버지니아 주립병원'이라는 중증 장애인과 중복 장애인들의 수용 시설로 우리가 본 것은 수영장과 주방과 작업실뿐이었다. 나의 기대는 정말 핵심적인 시설을 보고 싶었는데 기대에 못미쳐 실망스러웠다. 미국의 장애인정책은 대규모 시설에서 그룹홈을 지향하면서 Group Home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장애인을 볼 수 없었다.

다음날은 관광을 했다. 세계 인구 50억 중 2억밖에 직접 볼 수 없다는 백악관도 보고 국회의사당 등도 보았는데, 어디를 가나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었다. 길을 가다 우리는 턱이 있나 없나를 살피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건물에는 경사로가 있거나 턱이 없는데 유일하게 턱이 있는 곳은 은행이었다. 공원에도, 버스에도 지하철에도 편의시설이 되어 있었다. 특히 지하철은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 표를 사고 개찰구를 지나 지하철 승강장까지 다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개찰구는 휠체어가 드나 들수 있게 넓을 뿐 똑같이 되어 있어 장애인이 사용하는 건지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건지 구분할 수 없어 평등함을 느끼게 하는 나라였다. 그리고 질서와 기본원칙을 매우 잘 지키는 나라였다.

일요일 아침 우리의 관광과 3일간의 숙박과 운전을 도와주신 한인교회 장로님들과 조찬을 하고 헬로쉽교회에 갔는데, 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보았다. 그 학교 건물의 편의시설은 우리의 대학캠퍼스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이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 수화 통역과 영어 수화 통역

이 있어 청각장애인을 배려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드디어 포럼장소인 베데스다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 도착하자 정말 많은 장애여성이 있었고 계속 모여 들고, 인종과 나라와 언어와 문화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였건만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 끝에 얻은 답은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휠체어에 앉은 모습도, 목발 짚은 모습도, 절뚝거리는 모습도 모두 같다는 생각에 그랬을 것이다. 그날 밤 환영 리셉션에서 피아노 연주가 계속 되었다. 연주곡 중에 아리랑이 연주되어 연주자를 알아보았더니 핀란디아의 시각장애인이 멋지게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82개국에서 예상외로 614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되어 방 배정이 예약대로 되지 않아 좁은 침대에서 두 세명이 자야 했다. 큰 행사에 비해 준비가 너무 안되어 있었다. 스탠들조차 손발이 안 맞아 우리를 당황케 하기도 했다.

16일부터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기초연설이 있었고 오후에는 하루에 6개의 워킹숍이 저녁에는 각종 행사가 있어서 너무 타이트해서 모두 피곤하고 지친 모습들로 1주일의 지내야 했다.

기초연설 중 기억에 남는건 수잔 다니엘(Susan M. Daniels)의 의자에서 일으켜 세우고 전등을 끄고 '장애인 문제의 모든 기준을 비장애인에 맞춰 생각지 않고 왜 장애인만을 기준 삼아 특별시 하는가'라고 말한 대목이다. 의자 하나를 빌리는 데 70분이 드는데 400명이면 얼마며 전등도 시각장애인에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멋지게 설득해내는 모습에 기립박수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을 들으며 나는 편의시설을 누가 더 많이 이용하나?라는 질문을 하며 생각해보았다.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이 더 많이 쓴다. 요즈음 여행가방을 봐도 바퀴가 달려있고 유모차, 장바구니, 짐을 나르는 카트도 누가 더 많이 쓰는가? 이래도 편의시설 설비 비용이 아까운가?

화장실도 우리처럼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냥 화장실의 한 두 칸만 공간이 조금 더 넓을 뿐 장애인도 다르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이기도 했다.

점심시간에는 비디오 상영이 있었다. 백악관 앞에서 장애인들이 계단을 오르며 시위하는 장면을 보며 정말 우리 일을 똑바로 알리는 건 몇몇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우리를 알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가는 생각을 하며 나는 돌아 가서 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며 그 기간 내내를 보냈다.

다리 보조기를 하고 빨간 미니 스커트를 입은 모습을 상상해 보았는가? 나는 보조기도 안하고 휠체어도 타지 않은 조금은 보기 싫은 걸음걸이로 다니는 그런대로 경한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지만 반바지나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 차림으로 밖에 나가는 건 주저하며 큰 용기를 내야 나가는데, 그곳에서 그런 장애인을 보았을 때 조그만 충격이 되었고 멋져 보였다. 어쩌면 이런것도 장애여성도 똑같은 여성속의 여성이라는 말 없는 시위가 아닐까? 그렇게 다녀도 어색하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 그게 정말 부러웠다. 내가 아는 언니는 스커트를 한번도 입어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장애 분류도 다양해서 비만이 장애범주에 속했고 내가 보기에 장애인이라기 보다 중환자 같은 장애인도 있었다. 입으로 불러 운전해 다니는 전신마비 장애인들이 참가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개의 도움을 받는 시각장애인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을 보며 아! 돈이 있어야겠고 사회적 인식이 바르게 성립되어야겠고 장애 분류도 넓혀야 함을 알게 되었다.

장애여성에게 정말 필요한 건 교육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직업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극복을 위해선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조건이라는 확신을 얻고 왔다. 아니 어쩌면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이 있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각국의 탈렌트 쇼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감동이 남아 있는 장면은 브라질의 무용이다. 우린 보통 무용이라면 적어도 팔,다리가 자유로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

런데 그 무용은 나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 한 명의 휠체어를 탄 장애여성과 비장애 남성과 여성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무용으로 표현하였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 감동을 글로 표현할 수 없음이 유감스럽다.

다른 한편의 비디오 방영에서는 엄마가 된 장애여성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내 관심을 끈 건 뇌성마비 장애여성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이들의 옷을 입힐 때 단추 끼우는 것이었다고 해 모두들 웃었다. 이 말은 나도 동감하는 건데, 내옷은 단추가 있는 게 없다.

하루는 토론 시간에 늦어 방이 꽉 차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건 접근권 방해다'라고 하자 다른 방을 만들어 들어가기도 했다. 그 방엔 코스타리카, 필리핀, 한국, 미국 4개국 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중에 내가 물었다(물론 통역을 통해서). 한국은 결혼을 하려면 시집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장애여성들이 거의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이 많은데, 너희는 어떠냐? 라는 질문에 대답은 우리와 같다는 것이었다. 인간이 사는 모습은 어디나 똑 같은가 보다.

내가 포럼에서 보고 느낀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일을 바로 알리는 건 우리 자신이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우리 자신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우리를 알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는가라는 것이었다. 같은 아픔을 느껴야 하고, 같이 상처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도 함께 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장애인 문제는 개인의 또는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 가족은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인간 사슬이 되기 때문이다.

빛장을 여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결코 세계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왔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았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장애인 운동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였다.

나는 개인적인 일로 교포 한분의 도움을 받아 베스트 뷔(Best Buy)하는 큰 전자 상가에 갈 기회가 있었다. 눈에 띈 건 장애인을 위해 구비되어진 바구니 달린 휠체어였다. 나는 집이 백화점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자주 가지만 유모차는 있어도 휠체어는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보아서 그런지 부러운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의 집에 갈 기회가 주어져 구경하며 들은 얘기로 그 곳의 집들은 미국의 경제를 나타낸다고 한다. 경제가 호황일 때 지은 집은 걸모습부터 크고 호화스러워 보이고 불황일 때 지어진 집들은 조그만 했다. 걸은 조그맣고 귀여운 모습이지만 안은 크고 지하실이 있어 세탁과 다른 잡다한 일은 그곳에서 한다고 했다. 조금 경제적으로 부요한 집은 외곽의 숲속같은 곳에 있어서 야생노루가 와서 꽃들을 먹었다고 울상을 짓기도 했다. 장농이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 집은 전혀 편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실망스럽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 다녀와 생각한 건데 많이 다녀 보아야겠다는 것이다. 더 넓고 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참관기4

정 영 란 (빛장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

나의 작은소망

나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면서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나는 지난 6월15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에 다녀왔다. 이 포럼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포럼에 참석한 세계 여러나라의 장애여성들에게서 느낀 것은 아무리 장애가 심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어딘지 모르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마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일까?

미국에 가기전 내가 미국에서 꼭 보고 싶었던 것들은 편의시설에 관한 것과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정말 미국은 돌던대로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 나라였다.

아주 작은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 쓴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미국에서도 가장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는 오래곤 주라고 들었다. 그러나 워싱턴에도 건물 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없었다. 간혹 계단이 있는 건물이 있더라도 반드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시

설물에 장애인 마크로 된 표지판들이 있었다. 출입구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장애인마크로 된 버튼이 있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가 있었다.

이런 편의시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시설들을 설치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미국에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타보게 되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나로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지하철을 타 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지하철역에 계단들을 보면 아찔한 생각에 현기증마저 났다. 그런 내가 지하철을 탄 것이다. 워싱턴에서 지하철역에는 계단, 엘리베이트, 에스커레이트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시설들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와 유모차를 사용하는 아기 엄마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들을 왜 특별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지하철 뿐만 아니라 버스도 장애인 마크가 붙은 특장차가 눈에 많이 띄었다. 특히 공항과 공항 사이를 오가는 셔틀 버스를 타보았는데 그 버스 역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었다. 리프트 시설과 안에는 휠체어가 옮겨 앉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자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시설들을 보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런 시설들을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포럼에서의 주제는 '교육과 힘'에 관한 것들이었다. 교육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교육은 생존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여성들에게 있어 자립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여성들은 혼자서는 자립해서 살 수 없다는 생각들이 특히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현실이다.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부모나 형제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장애여성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교육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직업이 없기 때문

에 끊임없이 가난에 시달려야만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2남3녀 중 셋째딸로 태어났다. 부모님과 형제들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도 정규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다. 내가 가진 장애와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장애인이 교육을 제대로 받기란 하늘에 별을 따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자라오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슴 속에 지니고 살았다. 철이 들 무렵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부모님께서 나의 결을 떠나시면 그땐 어떻게 살까 하면서 형제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는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생활과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경제적으로 기반이 될만한 전문적인 직업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배우고자 알아보면, 늘 학력이 문제가 되었다. 나는 27세까지 무학력으로 살았다. 그래서 단순한 일을 찾아보면 나의 장애의 특성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직업 재활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몇몇 기술들은 요즘처럼 어려운 사회 속에서는 생활을 보장 받을 만한 직업이 못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랜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보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날 나의 나이 27세를 막 보내려 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늦게 시작한 공부라 힘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점은 등학교 문제였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중도에 포기하면 다시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렵게 야학을 다니면서 나와 모습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은 나보다 훨씬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늘

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와 같은 모습을 한 장애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랐다. 다만 TV에서 가끔 보여지는 재활원이나 수용소에서 무력하게 지내는 장애인들을 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야학에서 만난 사람들은 휠체어를 탔을 뿐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욱 깊게 생각할 수 있었고 여러면에서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사회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이어서인지,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에서 아직은 사회적인 여건들이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그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좋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갈 무렵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로부터 '빛장을 여는 사람들'에 대해 듣고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빛장 나오면서 나는 다른세계를 만났다. 내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듣고 이야기했던 문제들이 여성이라는 것과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았던 것이었다. 이런 장애여성의 문제를 빛장에서는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결책들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빛장은 흔하게 있는 장애인들의 소모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가고 애착이 가는 모임이었다. 지금까지 나 자신도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하여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지냈다. 그저 장애인이라 받는 차별로만 생각을 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기에 겪는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 했었다. 약 1년간 빛장에서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특별히 내가 해놓은 일은 없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장애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 또한 장애여성이기에...

미국에서 느낀 것이지만 모든 면에서 장애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일에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미국에서는 장애가 아무리 심한 사람도 자신이 원한다면 자립해서 혼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보장들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인들이 힘을

모아 이룩해놓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있었다.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전에도 그랬지만) 더욱 나 자신을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윤택하고 자신감이 넘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싸워서라도 얻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빛장의 활동을 하면서 장애여성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그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그리고 나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포럼에서 느낀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들을 바탕으로 나 자신부터 적극적인 삶을 개척해나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음 세대가 누리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의 장애여성들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장애여성들이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관기5

정 형 란 (빛장을 여는 사람들)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사람들

출발 전 비자 신청 때 만나 서로의 얼굴을 익히기도 했지만 6월 12일 목요일 공항에서 만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열흘 동안 함께 걸음걸이를 맞춰 행진해야 할 운명공동체임을 실감했다. 비행기에 오를 때부터 장애우 특별코스에 특별한 염려가 앞섰다. 휠체어가 기내에 들어갈 수 없는 까닭에 일행 중 2명은 13시간 넘게 지속되는 긴 비행시간동안 화장실 가는 일을 염려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음료수를 절제해야 했다. 좌석 배치도 일행이 앞 뒤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서로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일행들의 사정을 모르는 여행사측에서 비행기삿을 줄 일려고 마지막까지 예약을 늦추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몇몇 승객의 양해를 구해서 자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준비해간 포럼 일정표를 보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사에 참여할까 고심들 했다. 그리고 드디어 워싱턴에 도착 일행 중 기독교단체와 연락을 취한 분 덕분에 미주지역 밀알선교단 장애인 전용 차량이 와서 외곽지대의 한적한 여관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시간차 적응도 할 겸 장애인단체 방문도 계획되어 있었다.

나는 오른팔에 장애가 있어서 이동에 거의 불편이 없었지만 같은 조의 정영란(휠체어 사용)씨와 윤미경(뇌성마비 장애)씨의 경우에는 이동시 어려움이 조금씩 동행했다. 포럼에 참가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고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다행이었다.

6월 14일 토요일 아침 다시 밀알선교단 특수차량으로 워싱턴 시내에 들어가 백악관, 메모리얼 기념탑, 스미소니언 박물관 앞을 지나 6·25 참전용사기념관까지 거쳐서 국회의사당까지 눈요기를 하고 미국 도착후 처

음으로 다양한 인종들의 집합소인 미국 땅을 밟아본 기분도 느꼈다.

6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쯤 포럼이 열리는 베데스다 하이얏트 리전시 호텔에 도착 접수를 마치고 숙소를 배당받아 짐을 풀었다. 대체로 등치 큰 사람들을 손님으로 받아서 그런지 우리 일행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세면대만 해도 너무 높아서 휠체어를 탄 한 참가자의 경우 세수를 하기 위해 오히려 땀을 흘려야 했으니...

첫날 저녁, 만찬 겸 환영 리셉션에서는 내눈이 아플 정도로 다양한 장애우들과의 만남에 놀라고 관찰하느라 바빴다. 피부색깔도 각각이요, 헤어스타일도 각각이요, 보장구도 다양한 터라 한사람 한사람 머릿속에 새겨 놓느라 녀이 빠진 내게 김광이 빗장회원의 한마디는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생긴 것은 달라도 목발 짙는 모습이나 휠체어 탄 모습이 구체적으로 똑같아서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동지애가 저절로 샘솟는 것 같아요”

참가자 82개국 614명 가운데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까지도 생생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양팔 없이도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 매고, 자원봉사자도 없이 혼자 다니며 포럼 내용을 녹음기에 녹음하기도 하고 sex & sexuality에 대한 워샷 중에 발표자로 나와서 자기의 나체 사진을 예술적 작품으로까지 승화시켜 멋진 시까지 낭독한 여인(이름을 기억 못한 게 유감이지만)을 잊을 수 없다. 발가락으로 컵을 잡고 여유있게 물을 마시는 모습은 더더욱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녀의 자신만만하고 자궁심이 넘치는 표정까지.

- 휠체어를 타고 발레를 한 브라질의 장애여성 모습에서는 장애를 넘어선 한 여인의 무한한 용기와 가능성 개발에 숨이 딱 멈출 지경이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청각장애우가 무용을, 시각장애우들이 연극을 하는 경우를 보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우이 발레리나로서 활약하는 모습은 완벽한 신체를 지닌 일반인들의 상상을 깨뜨리고 인간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 장애인단체들의 발전 상황을 세계 각 나라의 장애여성에게 전하고자 나온 일본의 한 뇌성마비 장애우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어장애를 잘 극복하고 자기의견을 충분히 전달해내는 모습도 감동적이었다. 우리

장애우들의 경우 컴퓨터 교육은 필수적이며 장애를 극복해 내는 데 있어서 기초교육과 고등교육, 과학화된 교육자재가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절실하게 느낀 순간이었다.


- 그밖에도 맹도전을 끌고온 시각장애우의 고운 차림새, 전동휠체어에 앉아 버튼이 아닌 호스를 입으로 붙여서 방향조절을 하며 움직이는 장애우, 백발의 나이에도 젊은이들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가한 노장 장애우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내가슴에 살아남으리라 여겨진다.

- 5일간 오전내내 이루어진 각국 장애단체 대표들의 앞선 경험과 지혜가 깃든 기초연설 중 내가슴에 커다란 파문이 되어 돌아와 박힌 한마디 “한 장애여성을 후원하는 것은 한 가정을 후원하는 것이 되지만 한 장애남성을 후원할 경우 그 사람에 그치고 만다”라고 한 쉬아(SHIA)의 브리지타 앤더슨(Brigitta Anderson)의 목소리다. 아직도 장애아동이 태어날 경우 부모의 업보라 여기는 우리사회의 분위기나 중도장애우가 발생할 경우 아버지의 책임이기보다 어머니의 책임이 압도적이라고 보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여성의 자립기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한두명의 청각장애우를 위해서 몇 사람이 교대로 씬없이 수화통역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빠빠한 일정과 심한 장애로 인해 여유를 맛볼 시간도 없었지만 영어가 잘되지 않아 지겨워하는 한 참가자가 오후 워샷시간에 꼬박꼬박 조는 모습이 안스러워 단체의 규칙을 깨고 우리조는 밖으로 나가보았다. 무조건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가보기도 했다. 어딘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들었지만 호텔출구에서 먼저 눈에 띈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지하매표구까지 내려갔다. 그러자 지하철 직원이 다가와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며 다음부터는 그쪽을 이용하라고 안내해 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내리는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더니 곧바로 도로에 나설 수 있었다. 또 엘리베이터는 장애우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주부들, 짐가방을 끈 여행자들, 그밖에 노인들도 모두 이용했다.

세계인이 오가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내에 어떨까 궁금했는데 막상
 나서보니 화려한 면도 요란한 면도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지만 뭔
 가가 다른면이 있긴 있었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다는 것, 어디든 경사
 로가 매끄럽게 (우리나라의 경우 보도블럭과 도로의 연결부분이 매끄럽
 지 않고 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휠체어 장애우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
 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비해서) 깔려 있고 도로 중간중간
 에 경사로가 반드시 있었다. 공원 화장실 입구나 건물 입구에도 경사로가
 있었고 미닫이 문이나 자동문이 아닌 경우, 건물경비원이 달려나와 여닫
 이문을 붙잡아 주었다. 즉 휠체어 장애우 혼자 외출을 해도 거의 불편함
 이 없겠다고 판단이 섰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시내로 외출을 상상하면 두
 려움이 앞을 가로막는데 비교하여 부러움이 싹뚫다. 짧은 외출을 끝내고
 돌아올 때는 가장 교통이 붐비는 시간대라 택시를 호출했는데 어디든 공
 중전화에서 위치만 알려주면 15분 이내에 택시가 도착했다.

실내에서 포럼의 처음부터 끝까지 강연, 토론위주의 진행방식이 변화없
 이 강행되는 바람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타국 장애인들과 깊이있는 교재
 를 나누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극을 많이
 받고 돌아온 것은 커다란 수확인 듯하다. 선물은 짐이 될까봐서 하나도
 사지 않으면서 무거운 자료는 욕심껏 챙겨놓는 김광이 빗장회원의 적극
 성에 코끝이 찡했고 전동스쿠터를 빌려 보는 사람마다 말을 걸고 자료사
 진을 남긴다고 사진을 찍어댄 배복주 총무의 열의와 악천후 때문에 고생
 이 많았던 자원봉사자로 동행한 코리아 헤럴드 기자 김선옥 언니 등을
 알게된 것은 나의 남은 인생길을 즐겁게 할 것 같다. 

부 록

성명서

워싱턴에서, '97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열리는 국제 장애여성 리더쉽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전세계 82개국에서 모인 우리 614명의 여성들은 장애여성들과 소녀들이 힘을 갖추자는 것과 관련하여 솟아오른 이 힘에 크게 고무되었다. 우리는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여성권의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자매와 형제들에게 신호를 보내고자 한다. 이 중요한 의미를 신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모든 장애 여성과 소녀들의 발전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과 동반관계를 이룰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현안들은 인류 발전에 관한 여러 최우선 과제들 가운데 일부이다.

우리는 유엔 헌장과 정책들과 관련해 몇몇의 구체적인 행동과 고려들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구체적인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에 관한 헌장(CEDAW)
- 어린이 권리에 대한 헌장
- 장애인들에 대한 동등기회 보장을 위한 기준 규정

그리고 유엔 주최 대회들이나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행동강령에 포함된 약속들, 특별히 우리는 95년 베이징 여성대회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직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우리는 베이징 행동강령이 완전하게 실현이 되도록 할 것을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들이 어떠한 단서도 달지 않고 시행의 어떠한 장벽도 없이 그 헌장들을 비준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단체들은 단결해야 하며 전쟁과 나라안의 갈등의 중지를 촉구한다.

여성과 소녀들은 특별히 전쟁 후유증으로 가난이라는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전쟁과 갈등의 와중에 있는 국가의 의사 결정자들은 소녀와 여성들의 재활에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인권과 폭력

우리는 장애 여성과 소녀들의 메시지가 유전 공학, 생명윤리, 보철 디자인, 와우각 이식과 같은 인간공학, 장애를 근거로한 낙태, 동반자살, 안락사 그리고 모든 우생학적 관행과 관련한 토론과 정책에 명백히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현안들은 장애를 지닌 여성과 남성들에게 극히 중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모든 권리 침해가 중지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장애여성들이 출산 연구 정책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단계의 토론과 정책개발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올해 7월에 최종 확정될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유네스코)의 인간 게놈(인간 유전자에 관한 모든)와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 초안과 관련하여 각 정부에 우려를 표명한다.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해 초안문서의 분별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각 정부들이 장애인들 단체와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들과 그 초안 문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제 기관과 각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장애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높은 빈도의 폭력 문제를 정책과 입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보건과 인권 문제로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각종 공격 행위와 성적학대 등에 관한 범죄의 법률적 적용은 가해자에 대한 중대한 처벌과 사법체계 전반에서 희생자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여 강화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으로 고용된 돌보는 이들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 관련 단체의 직원 경찰과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장애여성들과 소녀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강간하고, 착취하고, 돌보지 않고, 일부러 고립시키고, 도움을 중단하고, 버리고, 마음대로 처분하고, 구걸하게 하고 팔고, 심지어는 살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구타당하는 어머니의 장애를 가진 자녀는 특별히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개발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여성 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서가 장애여성과 그들의 단체와 완전한 협력관계를 이루어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 절박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언급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장애 관련 단체들이 폭력 문제를 그들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세계여성운동이 전 세계에 걸쳐 장애여성과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악의적인 공격을 인식하고 모든 여성의 연대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학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살아 남을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폭력의 고리를 끊어버릴 만한 모든 조치들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증진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우리는 1) 오직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2) 절박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3) 태아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나라의 장애 여성들과 연대해서 항의한다.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이들은 장애여성들의 선택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베이징 행동강령의 문건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것이 실행되도록 관련단체들은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

빈곤은 장애 여성과 소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빈곤 퇴치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의 교육과 고용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권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육이 소녀와 여성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통합되고 참여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해결의 열쇠가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소녀와 여성들의 교육과 기술의 개발을 교육 체계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몇가지 언어들이 함께 사용되는 국가에서는 특히 언어와 의사소통의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장애를 가진 소녀와 여성들의 경제사회속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그들이

완전한 참여자임을 그 지역사회가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장애 소녀의 부모와 교사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교육이 장애소녀와 여성들이 힘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 되게 할 것을 촉구한다. 조직화된 여성 단체들이 효과적인 역할 모델을 제공해 소녀와 여성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들의 자립을 높이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장애소녀와 여성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구하고 대중매체는 장애여성과 소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

우리는 현재의 남성과 여성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될 것을 요구하고 장애여성들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여성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야망과 기술개발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여성들이 다른 장애여성들이 만든 상품과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마케팅 계획이나 세일즈 담당, 카탈로그 등 분야와 관련한 소규모 사업체를 설립할 것을 적극 권유한다. 은행들은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대출의 다중적인 가치를 인식해야만 한다. 정부는 세액 공제와 기타 적절한 혜택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체 개발에 몸담고 있는 여성들의 노력을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세계 상업 통신 그룹들이 비즈니스계에 몸담고 있는 장애여성들의 긍정적인 사례를 그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것을 요구한다.

건강관리

차별과 의료전문인들의 무지 그리고 극단적인 빈곤 등의 이유로 장애여성들은 정상신체를 가진 이들과 비교해 건강관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과 기회를 갖지 못한다. 건강관리 전문인들의 권력, 특히 정신 건강과 발달장애분야에서의 전문 종사자들의 권력은 쉽게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장애여성들은 원하는 건강관리를 받지 못해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 장애여성들은 기금부족으로 적절한 개인적 도움과 그 도움이 되는 기술과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여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의료 검사, 치료 등과 같은 선택을 갖는 것을 포함해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힘과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장애 소녀의 부모들은 의료 과정 결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가 보건 정책과 관료주의는 장애 여성들과 소녀들을 양질의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료 체계에 대한 접근권,
3. 의료전문인 양성 학교는 장애 학생들에게 소수우대정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재활과 출산교육 등을 포함한 장애를 가진 소녀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지역 상황에 적절한 적응을 위한 장비가 개발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시각에서 의료과정을 평가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성별에 따라 특이하게 나타나는 건강의 손상과 질병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각 전문분야가 참가하는 보건 의료 관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장애여성들은 장애여성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6.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현장 위주의 양질의 보건 서비스가 장애 소녀와 여성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7. 모든 국가들은 장애 소녀와 여성들에게 성차별 없이 재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성

장애여성들은 무성(無性)의 신화를 내면화 시키고 있다. 장애 여성들은